

5은, 5무더기		12처(處, āyātana), 12영역				18계(界, dhātu), 18요소				5위(位)	
1. 색은색계, rūpa skandhā	2.인연(因緣, āraṇa) : 이(因) : 이(緣) : 색(色) : 색(身) 5(五情) : 색(色) : 색(眼) : 眼(眼) : 眼(眼) : 眼(眼) 무루(無觸) : 색(色) : 5(五) : 1(一) : 1(一) : 1(一)	1. 안처(眼處, cakuru indriya āyātana)	7. 색처(色界, rūpa āyātana)	1. 안계(眼界, cakuru dhātu)	7. 색계(色界, rūpa dhātu)	13. 안식처(眼處, cakuru viñña dhātu)	1. 색싹(色界, rūpa dharmā)				
2. 소은색계, vedanā skandhā		2. 아처(耳處, śrotra indriya āyātana)	8. 색처(眼處, śabda āyātana)	2. 아계(耳界, śrotra dhātu)	8. 색계(眼界, śabda dhātu)	14. 안식처(眼處, śrotra viñña dhātu)	2. 색싹(色界, rūpa dharmā)				
3. 삼장(三受, samphāsa skandhā)		3. 비처(鼻處, ghṛāṇa indriya āyātana)	9. 향처(鼻處, ghṛāṇa āyātana)	3. 비계(鼻界, ghṛāṇa dhātu)	9. 향계(鼻界, ghṛāṇa dhātu)	15. 안식처(眼處, ghṛāṇa viñña dhātu)	3. 색싹(色界, rūpa dharmā)				
4. 향은(行蘊, saṃsāra skandhā)		4. 설처(舌處, jivhā indriya āyātana)	10. 미처(味處, rasa āyātana)	4. 설계(舌界, jivhā dhātu)	10. 미계(味界, rasa dhātu)	16. 안식처(眼處, jivhā viñña dhātu)	4. 색싹(色界, rūpa dharmā)				
5. 식은(識蘊, vijñāna skandhā)		5. 신처(身處, kāya indriya āyātana)	11. 촉처(觸處, spraṣṭavya āyātana)	5. 신계(身界, kāya dhātu)	11. 촉계(觸界, spraṣṭavya dhātu)	17. 신식처(身處, kāya viñña dhātu)	5. 색싹(色界, rūpa dharmā)				
		6. 의처(意處, māna indriya āyātana)	12. 법처(法處, dharmā āyātana)	6. 의계(意界, māno dhātu)	12. 법계(法界, dharmā dhātu)	18. 의식처(意處, māno viñña dhātu)	6. 색싹(色界, rūpa dharmā)				

분별근품(分別根品) - 22근 분별							
	(§ 2.1) 근품의 종상적(非사사)	(§ 2.2-2.4) 근품의 종상적(유사사)	(§ 2.5) 근(眼)품의 특상-유정신(有情識) 기준	(§ 2.6) 근(眼)품의 특상-유전(緣)·환원(還緣) 기준	(§ 2.7-2.8) 신수(身數) & 신수(心數)	(§ 2.8) 5수근의 분별&무분별	(§ 2.8) 3부구근의 특상
안근(眼根, cakurindriya)	1) 소의신을 장엄하는 일(莊嚴身)-몸이 누추해지지 않게 한다. 2) 소의신을 이롭고 기르는 일(得養身)-형나자를 피할 수 있다. 3) 의식 등을 낚는 일(生識等)-상응하는 신수를 낚는다. 4) 공통되지 않은 일(不共事)-색을 볼. (§ 2.1-1.1)						
이근(耳根, śrotrendriya)	1) 소의신을 장엄하는 일(莊嚴身)-몸이 누추해지지 않게 한다. 2) 소의신을 이롭고 기르는 일(得養身)-단식을 수용한다. 3) 의식 등을 낚는 일(生識等)-상응하는 신수를 낚는다. 4) 공통되지 않은 일(不共事)-소리를 들음. (§ 2.1-1.1)	자신의 대상을 오유행한다(了行塵) : 안 등 5수는 자기 개별적인 (자신)의 경계를 놓고 외부하는 [다시]에 대해 중상의 작용을 갖고 있다. (§ 2.2-1.6)					
비근(鼻根, ghrāṇendriya)	1) 소의신을 장엄하는 일(莊嚴身)-몸이 누추해지지 않게 한다. 2) 소의신을 이롭고 기르는 일(得養身)-단식을 수용한다. 3) 의식 등을 낚는 일(生識等)-상응하는 신수를 낚는다. 4) 공통되지 않은 일(不共事)-냄새 맡음. (§ 2.1-1.2)		내(內) 6처는 바로 유정신(有情識)의 근분. (§ 2.5)	1) 유전(流轉)의 소의(所緣) : 유정의 소의란 이유행면 안 등의 6근이다. (§ 2.6-1)			
설근(舌根, jihvendriya)	1) 소의신을 장엄하는 일(莊嚴身)-몸이 누추해지지 않게 한다. 2) 소의신을 이롭고 기르는 일(得養身)-단식을 수용한다. 3) 의식 등을 낚는 일(生識等)-상응하는 신수를 낚는다. 4) 공통되지 않은 일(不共事)-맛 봄. (§ 2.1-1.2)						
신계(身根, kāyendriya)	1) 소의신을 장엄하는 일(莊嚴身)-몸이 누추해지지 않게 한다. 2) 소의신을 이롭고 기르는 일(得養身)-단식을 수용한다. 3) 의식 등을 낚는 일(生識等)-상응하는 신수를 낚는다. 4) 공통되지 않은 일(不共事)-간혹을 느낀. (§ 2.1-1.2)						
의계(意根, mana indriya)	1) 후위(後有)를 삼각(攝藏)한다. 2) 자의 지복(自覺 辨別)을 이롭다 : 마음이 능히 시간을 이롭다. 마음이 능히 시간을 두 수주하니, 이만 같은 마음이 일(一)로, 모든 지복 지복에 대한 행하는 것 이롭다. 心能辨別, 心能攝藏, 如是心一法, 能辨能行. (§ 2.1-2.3)	자신의 대상을 오유행한다(了行塵) : 제6 의근은 일체의 경계를 능히 오유행하는 의근에 대해 중상의 작용을 갖고 있다. (§ 2.2-1.6)					
여근(眼根, strindriya)	1) 유정의 다(眼)有(有) : 구역(界)는 衆生差別 : [대상의 유정은 그 구역이 모두 동일한지] 이 두 근의 성격(性)에 따라 제6 의근은 제6근 마하와 남근의 유정에 차별이 있게 되었을 것을 말한다. (§ 2.1-2.1)	두 성의 차별은 여근과 남근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여근과 남근은 두 성에 대해 중상력이 있다. (§ 2.2-1)	이러한 (내 6처, 즉 유정신의 상) 차별은 여·남 두 가지에 의한 것. (§ 2.6)	3) 유전(流轉)의 지속(住) : 이러한 6근이 지속하는 것은 명근에 의한 것이다. 그것으로부터 생겨나기 때문이다. (§ 2.6-1)			
남근(男根, puruṣendriya)	1) 유정의 다(眼)有(有) : 구역(界)는 衆生差別 : 이러한 두 근이 생가법에 따라 형상과 말소리 유방 등의 차별이 있게 되었다 것을 말한다. (§ 2.1-2.1)						
여근(眼根, jivendriya)	1) 동등한(齊)을 능히 삼속. 2) 중등(中)을 능히 유지. (§ 2.1-2.1)	명근은 중등분(中)이 지속하는 것에 대해 중상의 작용이 있다. (§ 2.3)		3) 유전(流轉)의 지속(住) : 이러한 6근이 지속하는 것은 명근에 의한 것이다. 그것에 의지하여 지속하기 때문이다. (§ 2.6-1)			
낙근(樂根, sukhendriya)				1) 제2차(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지(地) (즉 계, 제1·제2 정락지)에서는 이 같은 마음의 즐거움을 일일이 지(地)로 삼고 있다. 2) 제2차에 존재하는 신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5대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心樂)'을 바로 낙근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 2.7)	1) 마음에 존재하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본 법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오로지 대(大) 힘(力)에 따라 생겨난다. (§ 2.8-1) 2) 물에 존재하는 5대신(五)의 괴(苦)는 마음의 분별(分別)의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색·사·受的 대상의 힘에 의해서만 생겨나기 때문에 무분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척의 상(相)이든 이러한 5대신(五)을 괴로움은 존재하는 것이다. (§ 2.8-1 각 주29)		
고근(苦根, duḥkhendriya)				3) '물 잡지 않는 것'과 '물 잡기'라고 하는 말만 바로 손(手)과 나(爪)를 지(地)로 삼고 있다. 그러나 (대상) 수(受)를 지(地)로 삼고 있다. 즉, 신수 안에서 물이 손(手)과 나(爪)를 지(地)로 삼고 있다. (§ 2.7)	1) 마음에 존재하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은 대(大) 분별로부터 생겨난다. (§ 2.8-1) 2) 유전(流轉)의 지속(住) : 이러한 6근이 지속하는 것은 명근에 의한 것이다. 그것에 의지하여 지속하기 때문이다. (§ 2.6-1)		
사근(喜根, saumanasyendriya)	1) 양오함에 대해 종상적 : 달·달의 수면(滿)에 수(滿)를 삼(三)기 때문. 달수면(滿)은 희근과 낙근에 따라 중(中)하고, 신(神)수면은 유근과 고근에 따라, 제(地)수면은 사근에 따라 중상한다. (§ 2.1-2.1)	낙(樂) 등의 5수근은 찬열(寒)에 대해 중상의 작용이 있다 : 개성에서 '낙수(樂)에서'는 땅이 수(受)를 삼(三)고, 고(苦) (苦)에서는 신(神)이 수(受)를 삼(三)고, 불(火)수(受)는 중(中)수(受)에서는 땅이 수(受)를 삼(三)고 있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4) 유전(流轉)의 수(受) : 이러한 6근이 (대상) 수(受)를 삼(三)고 있는 것은 5수근에 의한 것이다. 그것에 의해 대상을 삼(三)고 있기 때문이다. (§ 2.6-1)	1) 제2차(二)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지(地) (즉 계, 제1·제2 정락지)에서는 이 같은 마음의 즐거움을 일일이 지(地)로 삼고 있다. 2) 제2차에 존재하는 신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5대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즐거움(心樂)'을 바로 낙근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 2.7)	1) 마음에 존재하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은 대(大) 분별로부터 생겨난다. (§ 2.8-1) 2) 유전(流轉)의 지속(住) : 이러한 6근이 지속하는 것은 명근에 의한 것이다. 그것에 의지하여 지속하기 때문이다. (§ 2.6-1)		
우근(憂根, daumanasyendriya)				신(神)과 상(相)이 능히 손(手)과 나(爪)를 삼(三)고 있다. (§ 2.8)			
사근(喜根, uppekṣendriya)				1) 즐거움 또는 애도 없고 즐겁지 않은 것도 아니다 (喜(喜)非喜)으로, 바로 불(火)수(受)를 삼(三)고 있다. 이러한 수(受)를 삼(三)고 있다. (§ 2.6-1)	1) 사(喜)는 [물]에 있을 때 모든 다 같이 무분별로서, [물]에서나 강(江)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自體)로 삼(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으로 삼(三)할 때는 물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의 수로 삼은 것이다. 2) 사(喜)는 물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의 수로 삼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으로 삼(三)할 때는 물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의 수로 삼은 것이다. (§ 2.8-1)		
신근(眼根, śradhendriya)							
근근(眼根, vīryendriya)							
영근(眼根, smṛindriya)							
혜근(眼根, prajīndriya)							
미지당지근(未知當知根, ajñātām-ajñāyāmindriya)							1) 3부구루근 전립하는 아홉 가지의 근 : 의근(眼根) 낙근(樂根) 희근(喜根) 사근(身根) / 신근(神根) 근근(瞋根) 영근(意根) 정근(定根) 혜근(慧根)
이지근(已知根, ajñendriya)	신(神) 등의 여(女) 가지 근이 청정(淨)에 대해 종상적이 있다고 함은, 온갖 청정법이 그것에 따라 중상하기 때문이다. (§ 2.1-3.2)	신(神) 등의 여(女) 가지 근이 청정(淨)에 대해 종상적이 있다고 함은, 온갖 청정법이 그것에 따라 중상하기 때문이다. (§ 2.1-3.2)	유정신의 청정함을 성취하게 되는 것은 여(女) 세 가지 [유근]에 의해서이다. (§ 2.5)	1) 함발(含攝)의 소의(所緣) : 환원의 소의란 이유행면 안 등의 6근이다. (§ 2.6-2)			1) 3부구루근 전립하는 아홉 가지의 근 : 의근(眼根) 낙근(樂根) 희근(喜根) 사근(身根) / 신근(神根) 근근(瞋根) 영근(意根) 정근(定根) 혜근(慧根)
미지당지근(未知當知根, ajñātām-ajñāyāmindriya)				2) 함발(含攝)의 소의(所緣) : 환원의 소의란 이유행면 안 등의 6근이다. (§ 2.6-2)			2) 유득(豫得)에서는 바로 이러한 아홉 가지 근에 의해 미지당지근(未知當知根)이 성립한다.
이지근(已知根, ajñendriya)		1) 3부구루근(未知當知根·瞋瞋根·喜喜根)은 그 다음 다음의 도와 열반 등을 획득하는 것에 대해 중상의 작용이 있다. 이러한 유정신(有情識)은 이 근근에 의해, 최후의 미지당지근에 의해 획득하는 데 중상의 작용이 있다. 이러한 구지근(已知根)은 도를 획득하는 데 중상의 작용이 있다. 구지근은 현법유득(現法當得)에 대해 중상의 작용이 있으나, 이것에 의해 능히 해탈의 획득(獲)을 영수(領)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4)		3) 함발(含攝)의 소의(所緣) : 환원의 소의란 이유행면 안 등의 6근이다. (§ 2.6-2)			2) 유득(豫得)에서는 바로 이러한 아홉 가지 근에 의해 미지당지근(未知當知根)이 성립한다.
구지근(具知根, ajñātavindriya)				4) 함발(含攝)의 소의(所緣) : 환원의 소의란 이유행면 안 등의 6근이다. (§ 2.6-2)			1) 3부구루근 전립하는 아홉 가지의 근 : 의근(眼根) 낙근(樂根) 희근(喜根) 사근(身根) / 신근(神根) 근근(瞋根) 영근(意根) 정근(定根) 혜근(慧根)

12차-5온		
1. 안처(眼處, cakṣur indriya āyatana)	내처	1. 색온(色蘊, rūpa skandha) 중 5근
2. 마처(耳處, śrotra indriya āyatana)		
3. 비처(鼻處, ghṛāṇa indriya āyatana)		
4. 설처(舌處, jhivā indriya āyatana)		
5. 신처(身處, kāya indriya āyatana)		
6. 의처(意處, mana indriya āyatana)		5. 식온(識蘊, vijñāna skandha)
7. 색처(色處, rūpa āyatana)	외처	1. 색온(色蘊, rūpa skandha) 중 5경
8. 향처(香處, śābda āyatana)		
9. 향처(香處, gandha āyatana)		
10. 미처(味處, rasa āyatana)		
11. 촉처(觸處, spraṣṭavya āyatana)		
12. 법처(法處, dharmā āyatana)		2. 수온(受蘊, vedanā skandha)
		3. 상온(想蘊, saṃjñā skandha)
		4. 행온(行蘊, saṃskāra skandha)

18계-5온-5위			
18계	5온		5위
1. 안계(眼界, cakṣur dhātu)	내계	1. 색온(色蘊, rūpa skandha) 중 5근	1. 색법(色法, rūpa dharma) 중 5근
2. 이계(耳界, śrotra dhātu)			
3. 비계(鼻界, ghṛāṇa dhātu)			
4. 설계(舌界, jhivā dhātu)			
5. 신계(身界, kāya dhātu)			
6. 의계(意界, mano dhātu)	전철나의 식온과거의 6 의식계	5. 식온(識蘊, vijñāna skandha)	2. 심법(心法, citta dharma)
7. 색계(色界, rūpa dhātu)	외계	1. 색온(色蘊, rūpa skandha) 중 5경	1. 색법(色法, rūpa dharma) 중 5경
8. 향계(香界, śābda dhātu)			
9. 향계(香界, gandha dhātu)			
10. 미계(味處, rasa dhātu)			
11. 촉계(觸界, spraṣṭavya dhātu)			
12. 법계(法界, dharmā dhātu)		2. 수온(受蘊, vedanā skandha)	3. 심소법(心所法, caitta dharmā)
		3. 상온(想蘊, saṃjñā skandha)	
		4. 행온(行蘊, saṃskāra skandha)	4. 심불심용행법(心不稱樂行法, cittaṭṭapanyūḷḷa saṃskāra dharmā)
			5. 무위법(無爲法, asaṃskṛta dharmā)
13. 안식계(眼識界, cakṣur vijñāna dhātu)	한철나의 식온한자의 6 의식계	5. 식온(識蘊, vijñāna skandha)	2. 심법(心法, citta dharma)
14. 이식계(耳識界, śrotra vijñāna dhātu)			
15. 비식계(鼻識界, ghṛāṇa vijñāna dhātu)			
16. 설식계(舌識界, jhivā vijñāna dhātu)			
17. 신식계(身識界, kāya vijñāna dhātu)			
18. 의식계(意識界, mano vijñāna dhātu)			

도표1. 《§ 1.4 ~ 1.8》 유루, 무루, 유위, 무위

제법(諸法, All Dharmas)		
유위(有爲). saṃskṛta. Conditioned.		무위(無爲). asaṃskṛta. Unconditioned.
세로(世路), 언의(言依), 유리(有離), 유사(有事), 유류(有類). Temporal (advan: paths), grounds of discourse, liable to expire (possessed of leaving), well-grounded [on causes] (possessed of causes) 《§ 1.7》		허공, 택멸, 비택멸. Space (ākāśa) and two types of cessation (nirodha) 《§ 1.5》
유위-유루(有爲-有漏, sāsrava / āsrava), 유쟁(有諍, saraṇa). Contaminated (sasrava) “because the defilements adhere to them” 《§ 1.4》	유위-무루(有爲-無漏). anāsrava. Uncontaminated.	무위-무루(無爲-無漏) anāsrava. Uncontaminated.
사성제-①고제, ②집제. 1st and 2nd Noble Truths of Suffering & Origination 《§ 1.8》	사성제-④도제. mārga-satya. 4th Noble Truth of the Path 《§ 1.4》	사성제-③멸제. 3rd Noble Truth of Cessation 《§ 1.6》
유류온(有漏蘊). 취온(取蘊). upādāna-skandha. 유루취온은 염오법의 소의(所依). Upadana-skandha: of conflict, the world, false opinions, existence 《§ 1.8》	무루온(無漏蘊) 무루온은 청정법의 소의(所 依).	
온(蘊). Skandha = All conditioned dharmas 《§ 1.7》 ‘온(蘊)’은 유루와 무루에 모두 통한다.		
12처(十二處, 12 āyatana) = 18계(十八界, 18 dhātu) = 제법(諸法, sarva-dharma) = All Dharmas		

《§ 1.9 ~ 1.11》색온

색온(色蘊, rūpa skandha). 물질무더기			
1. 변괴 (變壞)하기 때문에 색취온(色取蘊)이라 이름한다. '변괴'란 바로 가히 그 허물어짐을 괴로워한다는 뇌괴(惱壞)의 뜻이다.			
2. 변애 (變礙)하기 때문에 색이라고 이름한다. '변애'란 변성(變性, 변화하는 성질)과 애성(礙性, 공간적 점유성을 가지고 장애하는 성질)이 합쳐진 말이다.			
5근 (五根, pañca-indriya):감각-기관 : 인식의 근거(의지처)가 되는 다섯 가지 종류의 정색(淨色).《§ 1.9-2》	5경 (五境, pañca-viṣaya / pañca-artha) / 5처 (五處, pañca-āyatana) :감각-경계		무표색 (無表色, avijñapti-rūpa, avijñapti) 무표색이란 이상의 네 가지 마음(난심(亂心), 무심(無心), 불난심(不亂心), 유심(有心))을 통해 항상 행위의 상사(相似) 상속을 가능하게 하는 힘.《§ 1.11 각주43》 무표는 비록 유표업(有表業)과 마찬가지로 색업(色業)을 본질로 하는 것일지라도 밖으로 드러나 다른 이들이 알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표'라고 이름한 것. 표업과 선정[定]에 의해 생겨난 선·불선의 색.-(비바사사종[師宗]에서 주장).《§ 1.11》
1. 안처(眼處, cakṣur indriya āyatana)	7. 색처(色處, rūpa āyatana). 색깔.	색(色) : 2종 또는 20종. ① 2종 : 현색(顯色, varṇa-rūpa), 형색(形色, samsthāna-rūpa).《§ 1.10-1》 색깔(색채와 형태).[편집 자주] ② 20종 : 청·황·적·백·장(長)·단(短)·방(方, 네모)·원(圓, 원형)·고(高, 볼록함)·하(下, 오목함)·정(正, 평평함)·부정(不正, 울퉁불퉁함, 비스듬함)·연기[煙]·구름[雲]·먼지[塵]·안개[霧]·그림자[影]·빛[光]·밝음[明]·어둠[闇]《§ 1.10-1》	
2. 이처(耳處, śrotra indriya āyatana)	8. 성처(聲處, śabda āyatana)	소리[聲] : 8종. 1. 유집수 대중(大種)[유정물의 4대종] 소리 : ① 유정명[언어]- 가외성(聲) [유쾌] ② 유정명[언어]- 불가외성 [불쾌] ③ 비유정명[비언어]- 가외성(聲) [유쾌] ④ 비유정명[비언어]- 불가외성 [불쾌] 2. 무집수 대중[무정물의 4대종] 소리 : ⑤ 유정명[언어, 변화인]- 가외성(聲) [유쾌] ⑥ 유정명[언어, 변화인]- 불가외성 [불쾌] ⑦ 비유정명[비언어]- 가외성(聲) [유쾌] ⑧ 비유정명[비언어]- 불가외성 [불쾌] [편집 자주] 1. 유집수 대중에 근거한 소리 : ① 언어적인 즐거운 소리[有情名・可意聲:이름테면 노래소리], ② 언어적인 불쾌한 소리[有情名・不可意聲:꾸짖는 소리], ③ 비언어적인 즐거운 소리[非有情名・可意聲:장단에 맞춘 손뼉소리], ④ 비언어적인 불쾌한 소리[非有情名・不可意聲:주위를 환기시키는 손뼉소리] 2. 무집수의 대중에 근거한 소리 : ⑤ 언어적인 즐거운 소리(이름테면 변화인의 부드러운 소리), ⑥ 언어적인 불쾌한 소리(변화인의 꾸짖는 소리), ⑦ 비언어적인 즐거운 소리(악기 소리), ⑧ 비언어적인 불쾌한 소리(천둥소리).《§ 1.10-2 각주31》	
3. 비처(鼻處, ghrāṇa indriya āyatana)	9. 향처(香處, gandha āyatana)	냄새(香) : 4종 또는 3종. 1) 호향(好香, 좋은 향)·오향(惡香, 악취)·등향(等香, 적당한 향)·부등향(不等香, 부적당한 향) 2) 호향(好香)·오향(惡香)·평등향(平等香). 『품류족론』. 《§ 1.10-4》 여기서 등향이란 소의신(所依身)을 증장시키는 향을 말하고, 부등향이란 감손시키는 향을 말한다.《§ 1.10-4 각주33》	
4. 설처(舌處, jihvā indriya āyatana)	10. 미처(味處, rasa āyatana)	맛(味) : 6종. ① 달고[甘], ② 시고[酢], ③ 짜고[鹹], ④ 맵고[辛], ⑤ 쓰고[苦], ⑥ 담백함[淡]《§ 1.10-3》	
5. 신처(身處, kāya indriya āyatana)	11. 촉처(觸處, spraṣṭavya āyatana)	감촉(觸) : 11종. 대종소조(大種所造) 7 :{ 1.매끄러운 성질[滑性], 2.겉끄러운 성질[澁性], 3.무거운 성질[重性], 4.가벼운 성질[輕性], 5.차가움[冷], 6.허기짐[飢], 7.목마름[渴] }, 대종(大種) 4종 : { 8.지계(地界), 9.수계(水界), 10.화계(火界), 11.풍계(風界) }.	
내처(內處, ādhyātmika-āyatana)	외처(外處, bāhya-āyatana)		
5근 ⊕ 5경 = 10처(處, āyatana) = 10계(界, dhātu)			

《§ 1.12》4대종

4대 요소.			
사대종 (四大種, catvāri mahā-bhūtāni / catur-mahābhūta) / 4계 (四界, dhātu-catuṣṭaya). 대(大)라는 이름은 ①광대함[寬廣], ②축적[聚], ③큰 형상[相], ④작용[用]에 근거.			
지계(地界, pṛthivī-dhātu)	수계(水界, ab-dhātu)	화계(火界, teja-dhātu)	풍계(風界, vāyu-dhātu)
지계의 작용[業]-地界能持 유지(維持)하고 지탱함.	수계의 작용[業]-水界能攝 포섭(包攝)하고 끌어모음.	화계의 작용[業]-火界能熟 성숙(成熟)하고 무르익힘.	풍계의 작용[業]-風界能長 증장(增長)하고 움직임.
지계의 자성(自性)-地界堅性 견고한 성질[堅性]	수계의 자성(自性)-水界濕性 축축한 성질[濕性]	화계의 자성(自性)-火界煖性 따뜻한 성질[煖性]	풍계의 자성(自性)-風界動性 운동의 성질[動性]

§ 1.9 ~ 1.17) 온-처-계-위					
5온	12처	18계		5위	
1.1 색온(色溫, rūpa skandha) 중 5경	7. 색처(色處, rūpa āyatana)	7. 색계(色界, rūpa dhātu)	외처 5경	1.1 색법(色法, rūpa dharma) 중 5경	
	8. 향처(香處, śabda āyatana)	8. 향계(香界, śabda dhātu)			
	9. 향처(香處, gandha āyatana)	9. 향계(香界, gandha dhātu)			
	10. 미처(味處, rasa āyatana)	10. 미계(味處, rasa dhātu)			
	11. 촉처(觸處, spraṣṭavya āyatana)	11. 촉계(觸界, spraṣṭavya dhātu)			
1.2 색온(色溫, rūpa skandha) 중 5근	1. 안처(眼處, cakṣur indriya āyatana)	1. 안계(眼界, cakṣur dhātu)	내처 5근	1.2 색법(色法, rūpa dharma) 중 5근	
	2. 이처(耳處, śrotra indriya āyatana)	2. 이계(耳界, śrotra dhātu)			
	3. 비처(鼻處, ghrāṇa indriya āyatana)	3. 비계(鼻界, ghrāṇa dhātu)			
	4. 설처(舌處, jihvā indriya āyatana)	4. 설계(舌界, jihvā dhātu)			
	5. 신처(身處, kāya indriya āyatana)	5. 신계(身界, kāya dhātu)			
2. 수온(受溫, vedanā skandha)			수온		
3. 상온(想溫, saṃjñā skandha)			상온	3. 심소법(心所法, caitta dharma)	
4. 행온(行溫, saṃskāra skandha)	12. 법처(法處, dharma āyatana)	12. 법계(法界, dharma dhātu)	행온	4.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cittaṭṭhavyākṣaṇa saṃskāra dharma)	
				5. 무위법(無爲法, asaṃskṛta dharma)	
				1. 색법(色法) 중 무표색(無表色, avijñapti)	
5. 식온(識溫, vijñāna skandha)	6. 의처(意識處, māna indriya āyatana)	6. 의계(意界, māna dhātu)	전참나	2. 심법(心法, citta dharma)	
		13. 안식계(眼識界, cakṣur vijñāna dhātu)			
		14. 이식계(耳識界, śrotra vijñāna dhātu)			
		15. 비식계(鼻識界, ghrāṇa vijñāna dhātu)			
		16. 설식계(舌識界, jihvā vijñāna dhātu)			
		17. 신식계(身識界, kāya vijñāna dhātu)			
		18. 의식계(意識界, māna vijñāna dhātu)			

§ 1.9 ~ 1.17) 은-치-계-위 part2							
5은	12치	18계		5위			
1. 색온(色溫, rūpa skandha)	7. 색처(色處, rūpa āyatana)	7. 색계(色界, rūpa dhātu)	외처 5경	1. 색법(色法, rūpa dharma)	1.1 색법(色法, rūpa dharma) 중 5경		
	8. 향처(香處, śabda āyatana)	8. 향계(香界, śabda dhātu)					
	9. 향처(香處, gandha āyatana)	9. 향계(香界, gandha dhātu)					
	10. 미처(味處, rasa āyatana)	10. 미계(味處, rasa dhātu)					
	11. 촉처(觸處, spraṣṭavya āyatana)	11. 촉계(觸界, spraṣṭavya dhātu)					
2. 수온(受溫, vedanā skandha)	1. 안처(眼處, cakṣur indriya āyatana)	1. 안계(眼界, cakṣur dhātu)	내처 5근		1.2 색법(色法, rūpa dharma) 중 5근		
	2. 이처(耳處, śrotra indriya āyatana)	2. 이계(耳界, śrotra dhātu)					
	3. 비처(鼻處, ghrāṇa indriya āyatana)	3. 비계(鼻界, ghrāṇa dhātu)					
	4. 설처(舌處, jihvā indriya āyatana)	4. 설계(舌界, jihvā dhātu)					
	5. 신처(身處, kāya indriya āyatana)	5. 신계(身界, kāya dhātu)					
3. 상온(想溫, saṃjñā skandha)			수온				
			상온		3.1 심소법(心所法 10종)		
					3.2 심소법(대보지법 10종)		
				3. 심소법(心所法, caitta dharma) (심상응행법)	3.3 심소법(대보지법 6종)		
					3.4 심소법(소법불선지법 2종)		
					3.5 심소법(소법선지법 10종)		
4. 행온(行溫, saṃskāra skandha)	12. 법처(法處, dharma āyatana)	12. 법계(法界, dharma dhātu)	행온		3.6 심소법(부정지법 8종)		
						4.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cittaṭṭhavyākṣaṇa saṃskāra dharma)	4.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cittaṭṭhavyākṣaṇa saṃskāra dharma) 14종
						5. 무위정법(無爲法, asamskāra dharma)	5. 무위정법(無爲法, asamskāra dharma)
* 색법(色法) 중 무위색(無色色, avijhāra)							
5. 식온(識溫, vijñāna skandha)	6. 의처(意處, mana indriya āyatana)	6. 의계(意界, mano dhātu)	전참나 식온	2. 심법(心法, citta dharma)			
		13. 안식계(眼識界, cakṣur vijñāna dhātu)	현참나 식온				
		14. 이식계(耳識界, śrotra vijñāna dhātu)					
		15. 비식계(鼻識界, ghrāṇa vijñāna dhātu)					
		16. 설식계(舌識界, jihvā vijñāna dhātu)					
		17. 신식계(身識界, kāya vijñāna dhātu)					
		18. 의식계(意識界, mano vijñāna dhātu)					

5부(山) 75법(法)
색경(色境, rūpa visaya)
상경(香境, śabda visaya)
향경(香境, gandha visaya)
미경(味境, rasa visaya)
촉경(觸境, spraṅga visaya)
안근(眼根, cakṣur indriya)
이근(耳根, śrotra indriya)
비근(鼻根, ghrāṇa indriya)
설근(舌根, jhivā indriya)
신근(身根, kāya indriya)
1. 수受, vedanā
2. 삼행, saṃpāḥ
3. 사(思, cetasā) 4. 촉(觸, sparśa) 5. 욕(欲, chandā) 6. 예(慧, prajñā) 7. 염(念, smṛ) 8. 작의(作意, manaskāra) 9. 승해(勝解, adhimokṣa) 10. 삼마지(三摩地, samādhi)
1. 신(身, śarīra) 2. 근(勤, vīrya) 3. 사(捨, upakṣa) 4. 참(精, hrī) 5. 괴(愧, apatāpīya) 6. 무탐(無貪, ālobha) 7. 무진(無瞋, adveṣa) 8. 불해(不害, ahimsa) 9. 경안(輕安, prāśānta) 10. 불방일(不放逸, apramāda)
1. 무명(無明, avidyā) 2. 망설(放逸, pramāda) 3. 명(明, kauṣṭhya) 4. 불신(不信, śarāda) 5. 혼(惽) 6. 사(思, cetasā) 7. 도가(道心, ādharma)
1. 무탐(無貪, ālobha) 2. 무진(無瞋, apramāda)
1. 분(忿, krodha) 2. 부(瞋, mraṣa) 3. 근(慍, mātṛa) 4. 질(慍, tsyā) 5. 자(智, pradāsa) 6. 학(害, viṃśa) 7. 만(慢, upādāna) 8. 천(瞋, māyā) 9. 경(敬, śrī) 10. 교(愧, māda)
1. 악작(惡作, kauṭhya) 2. 수안(善觀, mīdha) 3. 성(聲, vāca) 4. 사(思, cetasā) 5. 탐(貪, lāsa) 6. 진(眞, prajñā) 7. 안(眼, māna) 8. 의(疑, vīkṣa)
1. 욕(欲, prāṇa) 2. 비욕(非欲, aprāṇa) 3. 독분(獨分, nīkāyasthāna) 4. 무상(無想, asamjñā) 5. 무상정(無想定, asamjñāpatti, asamjñāpatti) 6. 열진정(滅盡定, nirodhasamāpatti, nirodhasamāpatti) 7. 열근(熱根, jhāna) 8. 생(生, jā) 9. 주(住, sthā) 10. 노(老, jara) 11. 열(滅, arāya) 12. 열신(熱身, nāmakāya) 13. 구신(肉身, padekāya) 14. 문신(文身, vyāṇakāya)
1. 위공무위(虛空無爲, śūnya asamskṛta)
2. 비법무위(非擇滅無爲, pratisamkhyānirodha asamskṛta)
3. 비비법무위(非擇滅無爲, pratisamkhyānirodha asamskṛta)

《§ 1.20》온 · 처 · 계의 개별적 뜻

	어리석음
온(蘊, skandha)	온갖 유위법의 화합 · 적취(積聚, rāsi)의 뜻, 이것이 바로 ‘온(skandha)’의 뜻이다. 계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다. 즉 “존재하는 모든 색으로서 혹은 과거의 것이거나, ... 혹은 가까이 있는 것, 이와 같은 일체의 것을 간추려 하나의 무더기[一聚]로 삼은 것을 설하여 ‘온’이라고 이름한다”.《§ 1.20-1》
처(處, āyatana)	심(心) · 심소법(心所法)이 생장(生長)하게 되는 문(門, āya-dvāra)의 뜻, 이것이 바로 ‘처(處, āyatana)’의 뜻이다. 즉 이 말을 해석하면, 능히 심과 심소법을 생장시키기 때문에 이를 일컬어 ‘처’라고 하였으니, 이는 바로 능히 그러한 심 · 심소법의 작용을 생장시킨다는 뜻이다.《§ 1.20-1-2》
계(界, dhātu)	법의 종족(種族, gotra)이라는 뜻, 이것이 바로 ‘계(界, dhātu)’의 뜻이다. 이를테면 하나의 산(山) 중에 다수의 동(銅) · 철(鐵) · 금 · 은 등이 있는 것을 설하여 [다양한 광물의 세계 즉] 다계(多界)라고 이름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소의신 혹은 하나의 상속(相續) 중에 열여덟 가지 종류의 제법의 종족이 있는 것을 ‘18계’라고 이름한다. 그리고 여기서 ‘종족’이란 바로 생의 근본[生本]의 뜻이다. 그런데 어떤 이는 설하기를, “‘계’라고 하는 말은 종류(種類)의 뜻을 나타내니, 이를테면 열여덟 가지의 법은 그 종류와 자성이 각기 다르며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18계라고 이름한 것이다”고 하였다.《§ 1.20-1-3》

《§ 1.20》온-처-계 차별 실시[건립]의 이유 : 교화될 유정에 세 종류가 있기 때문

	어리석음	근기	선호(이해[勝解]의 즐거움)
온	어떤 이는 심소(心所)에 어리석어 그것을 모두 아(我)라고 집착. 이들에게는 심소를 수 · 상 · 사로 나누어 상설(詳說)한 5온을 설함.	예리함	간략한 글[略文]
처	어떤 이는 오로지 색에만 어리석음. 이들에게는 색을 5근과 5경으로 나누어 상설한 12처를 설함.	중간	중간의 글[中文]
계	어떤 이는 색과 심(心)에 어리석음. 이들에게는 색과 심을 열 가지와 일곱 가지로 나누어 상설한 18계를 설함.	둔중함	자세한 글[廣文]

《§1.22》5온 순서의 이유

	거침[麤] : 거친 정도에 따라 온의 순서[隨麤次第]를 설정	염오(染汚) : 식의 염오에 따라 온의 순서[隨染次第]를 설정	그릇[器] : 그릇 등의 비유에 따라 온의 순서[隨器次第]가 설정
1. 색온(色蘊, rūpa skandha)	‘색’은 유대(有對)이기 때문에 모든 온 중에 가장 거칠다.	시작도 없는 생(生)과 사(死) 이래로 남녀는 ‘색’에 대해 서로 애락(愛樂)	‘색’은 그릇, 그릇은 음식의 소의이기 때문
2. 수온(受蘊, vedanā skandha)	무색온 중에 가장 거친 것은 오로지 ‘수’	이는 낙수(樂受)의 맛에 탐착하였기 때문	‘수’는 음식, 음식(즉 苦樂)은 신체를 증익 · 감손하기 때문
3. 상온(想蘊, saṃjñā skandha)	[행과 식] 두 가지와 비교[待]할 때 ‘상(想)’이 보다 거치니, 남 · 녀 등의 개념[想]은 보다 알기 쉽기 때문이다.	‘수’에 대해 탐착하는 것은 또한 전도된 생각[倒想]이 생겨났기 때문	‘상’은 조미료, 조미료는 음식의 맛을 분명하게 하기 때문
4. 행온(行蘊, saṃskāra skandha)	‘행’은 ‘식’보다 거치니, 탐 · 진 등의 작용[行]이 보다 알기 쉽기 때문이다.	전도된 생각이 생겨나게 된 것은 번뇌(즉 탐 · 진 · 치 등의 행온) 때문	‘행’은 요리사, 요리사는 능력(思 · 貪 등의 업과 번뇌)에 따라 좋고 나쁜 음식(즉 異熟)을 낳기 때문

5. 식온(識蘊, vijñāna skandha)	‘식’이 가장 미세하니, 경계의 상을 전체적으로 취[總取]하여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번뇌는 ‘식’에 근거하여 생겨난 것으로, 이러한 번뇌와 앞의 세 가지는 모두 식을 더럽히는 것이다.[‘식’은 먹는 자, 먹는 자는 이 모든 것을 향수하기 때문
----------------------------	---	--	----------------------------------

《§1.23》 6근 순서의 이유 : 6근 순서에 근거하여 6경과 6식의 순서도 성립

	감지하는 대상의 종류	4대종 종류	감지의 영역-멀리까지 작용[遠用] / 신속분명한 작용[速明用]	위치의 차이
1. 안근(眼根, cakṣur indriya)	현재법	오직 소조색(파생물질)	먼 대상까지 감지	눈은 가장 위
2. 이근(耳根, śrotra indriya)				귀는 눈 보다 밑
3. 비근(鼻根, ghrāṇa indriya)			가까운 대상에 한정	코는 귀 보다 밑
4. 설근(舌根, jihvā indriya)				혀는 코 보다 밑
5. 신근(身根, kāya indriya)		4대종(근본물질), 소조색	직접 접촉	몸의 대부분은 위 넷 보다 밑
6. 의근(意根, mana indriya)	3세법, 非世法, 무위법	비 4대종	5근에 의지	특정 위치 없이, 5근에 의지

18계 제법분별

18계의 특성에 따른 분별						근(根)						경(境)						식(識)										
#	◎ 아비달마구사론 제1품. 분별계품 중 29번~48개송 요약 : 18계의 특성에 따른 분별. ◎ (§ 계승번호) <해당하는 18界의 수> ◎ : 추가설명. ◎ / : 또는(or).						1. 안계 眼界cakṣur dhātu	2. 이계 耳界śrotra dhātu	3. 비계 鼻界 ghrāṇa dhātu	4. 설계 舌界 jihvā dhātu	5. 신계 身界 kāya dhātu	6. 의계 意 mano dhātu	7. 색계 色界 rūpa dhātu	8. 성계 聲界 śabda dhātu	9. 향계 香界 gandha dhātu	10. 미계 味處 rasa dhātu	11. 촉계 觸界 spraṣṭavya dhātu	12.1 법계 法界 dharma dhātu (심상왕)	12.2 법계 法界 dharma dhātu (심불상왕)	13. 안식계 眼識界 cakṣur vijñāna dhātu	14. 이식계 耳識界 śrotra vijñāna dhātu	15. 비식계 鼻識界 ghrāṇa vijñāna dhātu	16. 설식계 舌識界 jihvā vijñāna dhātu	17. 신식계 身識界 kāya vijñāna dhātu	18. 의식계 意識界 mano vijñāna dhātu			
1	(§ 1.29) 유견 (有見, sanidarśana, Visible) <1> vs. 무견(無見, anidarśana, Invisible) <17>						무견	무견	무견	무견	무견	무견	유견	무견	무견	무견	무견	무견	무견	무견	무견	무견	무견	무견				
2	(§ 1.29) 장애유대 (障礙有對, āvaraṇa-pratighāta) <10> vs. 비 장애무대(X) <8>						장애유대	장애유대	장애유대	장애유대	장애유대	X	장애유대	장애유대	장애유대	장애유대	장애유대	X	X	X	X	X	X	X				
3	(§ 1.29) 경계유대 (境界有對, viśaya-pratighāta) <12> vs. 비 경계무대(X) <8>						경계유대	경계유대	경계유대	경계유대	경계유대	경계유대	X	X	X	X	X	경계유대	경계유대	경계유대	경계유대	경계유대	경계유대	경계유대				
4	(§ 1.29) 소연유대 (所緣有對, ālambana-pratighāta) <8> vs. 비 소연무대(X)						X	X	X	X	X	소연유대	X	X	X	X	X	소연유대	X	소연유대	소연유대	소연유대	소연유대	소연유대				
5	(§ 1.29) 무기 (無記, avyākṛta, morally neutral) <8>						무기	무기	무기	무기	무기	X	X	X	무기	무기	무기	X	X	X	X	X	X	X				
6	(§ 1.29) 3성(性) (선(善, kuśala)·불선(不善, akuśala)·무기(無記, avyākṛta)) <10>						X	X	X	X	X	3성(性)	3성(性)	3성(性)	X	X	X	3성(性)	3성(性)	3성(性)	3성(性)	3성(性)	3성(性)	3성(性)				
7	(§ 1.30) 욕계 (欲界, kāma-dhātu) <18>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욕계				
8	(§ 1.30) 색계 (色界, rūpa-dhātu)·초선(초정려) <14>						초선	초선	초선	초선	초선	초선	초선	X	X	초선	초선	초선	초선	X	X	초선	초선	초선				
9	(§ 1.30) 색계 (色界, rūpa-dhātu)·제2선~제4선 <11> : 유부에 의하면 욕계에는 18계 전부가 있지만, 색계 초선에 이르면 향 · 미와 비식 · 설식이 없으며, 제2선 이상 제4선에서는 앞의 네 가지 이외의 안 · 이 · 신 식이 없으며, 다시 무색계에 이르면 앞의 15계가 부재하고 오로지 의 · 법 · 의식의 3계만이 남게 된다.(§ 1.45-3 각주125)						제2선~제4선	제2선~제4선	제2선~제4선	제2선~제4선	제2선~제4선	제2선~제4선	제2선~제4선	제2선~제4선	X	X	제2선~제4선	제2선~제4선	X	X	X	X	X	X	제2선~제4선			
10	(§ 1.30) 무색계 (無色界, ārūpya-dhātu) <3>						X	X	X	X	X	무색계	X	X	X	X	X	무색계		X	X	X	X	X	무색계			
11	(§ 1.31) 오직 유루(有漏, sāsrava / āsrava, impure) <15> vs. 유루(有漏)·무루(無漏, anāsrava, pure) <3> (§ 1.31) 심사(尋vitarka, 伺vicāra) 분별.						유루	유루	유루	유루	유루	도제: 무루 여타: 유루	유루	유루	유루	유루	유루	도제&무위: 무루 여타: 유루		유루	유루	유루	유루	유루	도제: 무루 여타: 유루			
12	(§ 1.31) 심사(尋vitarka, 伺vicāra) 분별. [1] 유심유사(有尋有伺) <5> [2] 통삼품 (通三品) : 유심유사 / 무심유사 / 무심유사 <3> [3] 무심유사(無尋無伺) <10> : 통삼품(通三品) : 유심유사 / 무심유사 / 무심유사 - ① 욕계 미지정과 초정려(有尋伺地) : { (1)유심유사(有尋有伺) : 심사를 제외하고 8 박 상응법. (2) 무심유사(無尋唯伺) : 심률 자체. (3) 무심유사(無尋無伺) : 일체의 비상응법. (4) 무사유심(無伺唯尋) : 사한 자체. } / ② 중간정려 : 무심유사(無尋唯伺) ; 심 / ③ 제2정려 이상-유정천정(有頂天定) : 무심유사(無尋無伺) ; 일체의 비상응법. }						무심유사	무심유사	무심유사	무심유사	무심유사	통삼품 ① ② ③	무심유사	무심유사	무심유사	무심유사	무심유사	통삼품 ① ② ③	무심유사	유심유사	유심유사	유심유사	유심유사	유심유사	유심유사	유심유사	통삼품 ① ② ③	
13	(§ 1.34) 유소연 (有所緣, sālambana) <8> vs. 무소연(無所緣, anārambana) <11>						무소연	무소연	무소연	무소연	무소연	유소연	무소연	무소연	무소연	무소연	유소연	무소연	유소연	유소연	유소연	유소연	유소연	유소연	유소연			
14	(§ 1.34) 무집수 (無執受, aupātta) <9> vs. 유집수(有執受, upātta)·무집수 <9> : 성경(聲經)이 무집수인 이유? 유집수란 (1)마음의 의지처가 되면서도, (2)고라의 감각을 느낄 수 있고 (3)감손과 이익이 있는 것으로 욕심 즉 소의신(所依身)을 중시에 둔 개념이다. 현재근과 분리되지 않은 색향미촉이 유집수에 포함되는 반면 현재근과 분리되지 않은 성(聲)만은 예외적으로 무집수로 분류한다. 이는 예를 들어 욕신을 삼피우고 힘을 주는 외부의 음식을 먹는다 할 때, 그 음식자체(형체), 냄새, 맛, 감촉 등은 욕신을 삼피우며 이익되게 할 수 있지만 그 음식의 소리는 이 욕신을 삼피우는 등의 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악을 듣는다 하더라도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현재근: 유집수 과거·미래근: 무집수	현재근: 유집수 과거·미래근: 무집수	현재근: 유집수 과거·미래근: 무집수	현재근: 유집수 과거·미래근: 무집수	현재근: 유집수 과거·미래근: 무집수	무집수	현재근비불라: 유집수 현재근불화합: 무집수 과거·미래: 무집수	무집수	현재근비불라: 유집수 현재근불화합: 무집수 과거·미래: 무집수	현재근비불라: 유집수 현재근불화합: 무집수 과거·미래: 무집수	현재근비불라: 유집수 현재근불화합: 무집수 과거·미래: 무집수	무집수		무집수	무집수	무집수	무집수	무집수	무집수			
15	(§ 1.35) 대중 (大種, mahā-bhūta) <1> vs. 소조(所造, bhautika-ārthya):5근+4경+촉계의 소조+법계의 무표색 <11> vs. 오직(only) 소조(所造)인 것 <9>						소조	소조	소조	소조	소조	비소조	소조	소조	소조	소조	대중 & 소조	무표색 : 소조 나머지 : 비소조		비소조	비소조	비소조	비소조	비소조	비소조	비소조		
16	(§ 1.35) 가적집 (可積集, saṃcita)·극미의 취집(聚集, saṃghāta) <10> vs. 비적집(非積集, asaṃcita) <8>						가적집	가적집	가적집	가적집	가적집	비적집	가적집	가적집	가적집	가적집	가적집	비적집		비적집	비적집	비적집	비적집	비적집	비적집	비적집		
17	(§ 1.36) 능절(能折)·소칭(所折), 능소(能燒)·소소(所燒), 능칭(能稱)·소칭(所稱) <4> 능히 쪼개는 것[능절能折], 쪼개지는 것[소절所折] <4> 능히 태우는 것[능소能燒], 태워지는 것[소소所燒] <4> 능히 재는 것[능칭能稱], 재어지는 것[소칭所稱] <4>						X	X	X	X	X	X	능절·소절, 능소·소소, 능칭·소칭	X	능절·소절, 능소·소소, 능칭·소칭	능절·소절, 능소·소소, 능칭·소칭	능절·소절, 능소·소소, 능칭·소칭	X	X	X	X	X	X	X	X			
18	(§ 1.37) 이숙성 (異熟生, vipākaja) : 5색근, 색 · 향 · 미 · 촉, 7심계, 법계 <17>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X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이숙성				
19	(§ 1.37) 소장양 (所長養, aupacayika) : 5색근과 5경 <10>						소장양	소장양	소장양	소장양	소장양	X	소장양	소장양	소장양	소장양	소장양	X	X	X	X	X	X	X				
20	(§ 1.37) 등류성 (等流性, naiḥśyandika) <8> : 5근은 이숙성과 소장양과 별도의 등류성이 아니기에 5근의 등류성은 제외.						X	X	X	X	X	등류성	등류성	등류성	등류성	등류성	등류성	등류성	등류성	등류성	등류성	등류성	등류성	등류성				
21	(§ 1.38) 유실사 (有實事, dravyayukta) : 견실(堅實)의 뜻=무위 <13>						X	X	X	X	X	X	X	X	X	X	X	유실사	X	X	X	X	X	X				
22	(§ 1.38) 일찰나 (一剎那, kṣaṇika) : 의계 · 의식계, 법계 <3>						X	X	X	X	X	일찰나	X	X	X	X	X	일찰나	X	X	X	X	X	일찰나				
23	(§ 1.39) 내(內) <12> vs. 외(外) <6> 6식은 이집(āhamkāra)의 의지(依止)가 되기 때문에 '아(我)'로 가설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그러한 '아'의 소위가 되는 것(假託)을 '내적인 것'이라 하고, 소연이 되는 것(疎離)을 '외적인 것'이라고 한다.(§ 1.39-1 각주61)						내(內)	내(內)	내(內)	내(內)	내(內)	내(內)	외(外)	외(外)	외(外)	외(外)	외(外)	외(外)	외(外)	외(外)	내(內)	내(內)	내(內)	내(內)	내(內)	내(內)	내(內)	
24	(§ 1.39) 오직 동분 (同分, sabhāga) <1> vs. 동분 / 피동분 (彼同分, tat-sabhāga) <17> : 근(根) · 경(境) · 식(識) 3사(事)의 화합으로 인식이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근(根) · 경(境) · 식(識)을 동분(同分)이라 하고, 인식이 발생하지 못한 경우 각각을 피동분(彼同分)이라 한다. 법계는 항상 식을 동반하므로 법계가 있으면 항상 인식이 발생하기에 항상 동분이지만, 나머지 17계는 근경식 3사 중 하나라도 결여되면 인식이 발생하지 못하므로 동분이기도 하고 피동분이기도 하다. 동분(同分)이면, 근경식이 인식이라는 결과의 각 부분(分)을 함께(同) 담당한다는 뜻이며, 인식의 각 부분을 담당하는 근경식 각자의 작용을 자립(自業), 고유한 작용이라고 한다.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오직 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동분 / 피동분
25	(§ 1.40) 수소단 (修所斷, bhāvanāheya) <15> vs. 견소단 (見所斷, darśanaheya) <3> vs. 비소단 (非所斷, aheya) <3>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견소단 비소단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견소단 비소단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수소단 견소단 비소단		
26	(§ 1.41) 견(見, dṛṣṭi) <2> vs. 비견 (非見, adrṣṭi) <16> 견(見, dṛṣṭi) : 여덟가지, (1~5) 유신견(有身見) 등 5 영오견(染汚見), (6) 세간의 정견(正見), (7) 유학(有學)정견, (8) 무학(無學)정견.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견(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견(見) : 여덟 가지. 나머지 법계는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비견(非見)	
27	(§ 1.41) 근(根)과 경(境)의 집족 (俱至) <3> vs. 비집족 (不至) <3>						비집족(不至)	비집족(不至)	집족 (俱至)	집족 (俱至)	집족 (俱至)	비집족(不至)	비집족(不至)	비집족(不至)	집족 (俱至)	집족 (俱至)	집족 (俱至)	비집족(不至)	-	-	-	-	-	-	-			
28	(§ 1.44) 근(根) 미진(微塵)과 경(境) 미진(微塵)의 상호 양적 관계 등량 [取等量境] <3> vs. 부정량 [取不定量境] <2> vs. 불가량 [取不可辨其形量差別] <1>						부정량 (不定量)	부정량 (不定量)	등량(等量)	등량(等量)	등량(等量)	불가량 (不可量)	부정량 (不定量)	부정량 (不定量)	등량(等量)	등량(等量)	등량(等量)	등량(等量)	불가량 (不可量)	-	-	-	-	-	-	-		
29	(§ 1.44) 5근 극미의 동분·피동분 일체 (모두동분/모두피동분) / 일부 (일부동분/여부피동분) <4> vs. 일부 (일부동분/여부피동분) <1>						일체 / 일부	일체 / 일부	일체 / 일부	일체 / 일부	일체 / 일부	-	-	-	-	-	-	-	-	-	-	-	-	-	-			
30	(§ 1.44) 6식의 소의(所依)와 소연(所緣)의 시간 현재 <5> vs. 삼세 (三世) <1> vs. 과거 <1>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과거	현재	현재	현재	현재	현재	삼세	소의 : 현재 소연 : 현재	소의 : 현재 소연 : 현재	소의 : 현재 소연 : 현재	소의 : 현재 소연 : 현재	소의 : 현재 소연 : 현재	소의 : 현재 소연 : 현재				
31	(§ 1.44) 6식과 소의(所依)의 관계 개별소의 (別所依) : 각 6근 <5> vs. 공통소의 (通所依) : 외근 <1> 2종의 소의를 취하는 식 : 전 5식 <5> vs. 1종의 소의를 취하는 식 : 의식 <1>						개별소의	개별소의	개별소의	개별소의	개별소의	공통소의	-	-	-	-	-	-	소의 : 2종 개별소의 공통소의	소의 : 2종 개별소의	소의 : 2종 개별소의	소의 : 2종 개별소의	소의 : 2종 개별소의	소의 : 2종 개별소의	소의 : 2종 개별소의	소의 : 1종 공통소의		
32	(§ 1.45) 6식의 소의(所依) <6> vs. 소연(所緣) <6> / 불공 (不共) <13> vs. 공 (共) <5> : 공(共)이란 자신과 다른 이의 의식에 모두 수용되는 것(共 兼法).						소의·불공	소의·불공	소의·불공	소의·불공	소의·불공	소의·불공	소연·공(共)	소연·공(共)	소연·공(共)	소연·공(共)	소연·공(共)	소연·공(共)	소연·불공	능의, 능연 불공	능의, 능연 불공	능의, 능연 불공	능의, 능연 불공	능의, 능연 불공	능의, 능연 불공	능의, 능연 불공		
33																												

육계생#3정려 눈으로#2정려 색 볼 때	육계	3정려	2정려	초정려
육계생#3정려 눈으로#3정려 색 볼 때	육계	3정려	3정려	초정려
육계생#4정려 눈으로#육계 색 볼 때	육계	4정려	육계	초정려
육계생#4정려 눈으로#초정려 색 볼 때	육계	4정려	초정려	초정려
육계생#4정려 눈으로#2정려 색 볼 때	육계	4정려	2정려	초정려
육계생#4정려 눈으로#3정려 색 볼 때	육계	4정려	3정려	초정려
육계생#4정려 눈으로#4정려 색 볼 때	육계	4정려	4정려	초정려

2선생 (2선所依身)	2선眼-육계色-초선眼識 3선眼-육계色-초선眼識 4선眼-육계色-초선眼識	2선眼-초선色-초선眼識 3선眼-초선色-초선眼識 4선眼-초선色-초선眼識	2선眼-2선色-초선眼識 3선眼-2선色-초선眼識 4선眼-2선色-초선眼識	3선眼-3선色-초선眼識 4선眼-3선色-초선眼識	4선眼-4선色-초선眼識
3선생 (3선所依身)	3선眼-육계色-초선眼識 4선眼-육계色-초선眼識	3선眼-초선色-초선眼識 4선眼-초선色-초선眼識	3선眼-2선色-초선眼識 4선眼-2선色-초선眼識	3선眼-3선色-초선眼識 4선眼-3선色-초선眼識	4선眼-4선色-초선眼識
4선생 (4선所依身)	4선眼-육계色-초선眼識	4선眼-초선色-초선眼識	4선眼-2선色-초선眼識	4선眼-3선色-초선眼識	4선眼-4선色-초선眼識

분별근품(分別根品) - 22근 특성 분류														
22근 분별 /: or & and	연근 (眼根, cakṣurindriya)	이근 (耳根, śrotendriya)	비근 (鼻根, ghrāṇendriya)	설근 (舌根, jihvāendriya)	신근 (身根, kāyendriya)	의근 (意根, māno indriya)	여근 (女根, strīndriya)	남근 (男根, puruṣendriya)	명근 (命根, jīvitendriya)	낙근 (樂根, sukḥendriya)	고근 (苦根, duḥkḥendriya)	희근 (喜根, saumanasyendriya)	우근 (憂根, daurmanasyendriya)	사근 (捨根, upekṣendriya)
22근의 방주 분별	유색근(有색根)					심(心)	유색근(有色根)		행(行)	5수근(五受根)				
§ 1.48) 22근과 18계	연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계	신계	신계	법계(심불상유)	방계(8계)				
22근과 5위 분별	색법					심법	색법		심불상응법	심소법				
§ 2.1) 근품의 중상역(유부)	1) 소의신을 장엄하는 일 [莊嚴身]-몸이 누추해지지 않게 한다. 2) 소의신을 이끌고 기르는 일[導養身]-원난자를 지킬 수 있다. 3) 의식 등을 낳는 일[生識]-상응하는 심소를 낳는다. 4) 공통되지 않은 일[不共]-사리를 들음. (§ 2.1-1.1)	1) 소의신을 장엄하는 일 [莊嚴身]-몸이 누추해지지 않게 한다. 2) 소의신을 이끌고 기르는 일[導養身]-원난자를 지킬 수 있다. 3) 의식 등을 낳는 일[生識]-상응하는 심소를 낳는다. 4) 공통되지 않은 일[不共]-사리를 들음. (§ 2.1-1.1)	1) 소의신을 장엄하는 일 [莊嚴身]-몸이 누추해지지 않게 한다. 2) 소의신을 이끌고 기르는 일[導養身]-단식을 수련한다. 3) 의식 등을 낳는 일[生識]-상응하는 심소를 낳는다. 4) 공통되지 않은 일[不共]-사리를 들음. (§ 2.1-1.2)	1) 소의신을 장엄하는 일 [莊嚴身]-몸이 누추해지지 않게 한다. 2) 소의신을 이끌고 기르는 일[導養身]-단식을 수련한다. 3) 의식 등을 낳는 일[生識]-상응하는 심소를 낳는다. 4) 공통되지 않은 일[不共]-사리를 들음. (§ 2.1-1.2)	1) 소의신을 장엄하는 일 [莊嚴身]-몸이 누추해지지 않게 한다. 2) 소의신을 이끌고 기르는 일[導養身]-단식을 수련한다. 3) 의식 등을 낳는 일[生識]-상응하는 심소를 낳는다. 4) 공통되지 않은 일[不共]-사리를 들음. (§ 2.1-1.2)	1) 후유(後有)를 상식(攝藏) 후유(後有) 2) 자유 자재로 따라 행할 [隨所隨行]-마음이 능히 세심할 때이며, 마음이 능히 시간을 두루 삼수한다. 이와 같은 마음의 일법(一法)에, 모든 것은 자유 자재로 따라 행하는 것이요이다. 심해(心海), 心羅羅(心羅羅), 如海心法, 自在在羅心. (§ 2.1-2.3)	1) 유정의 다름[有別異]-구역에는 體別(體別) : [체조의 유정은 그 유형이 모두 같았지만] 이 두 근이 생겨남에 따라 제 유형으로 하여금 여자와 남자의 유형에 차별이 있게 되었던 것을 말한다. (§ 2.1-2.1) 2) 분별의 다름[分別異]-구역에는 體別(體別) : 이러한 두 근이 생겨남에 따라 형상과 말소리 유형 등의 차별이 있게 되었던 것을 말한다. (§ 2.1-2.1)	1) 중등분(中等分)을 능히 상(勝)지. 2) 중등분(中等分)을 능히 지(持)지. (§ 2.1-2.2)	1) 명오함에 대해 중상력(中上力) : 탐 등의 수면(睡眠)이 수증(隨增)하기 때문. 탐수면(貪睡眠)은 희근과 낙근에 따라 중정(隨轉)하고, 진(瞋)수면은 무근과 고근에 따라, 지(癡)수면은 사근에 따라 중정한다.(§ 2.1-3.1) 2) [유아사] 낙 등은 청정함에 대해서도 역시 중상력이 있다 : 낙(樂)으로 인해 마음은 청정(淸淨)에 들게 되고, 고(苦)는 신(身)의 소의(所倚)가 되며, 이것 가지 출리(出離)의 소의(所依)가 희(喜)와 우(憂)와 사(捨)이다.(§ 2.1-3.2)					
§ 2.2-2.4) 근품의 중상역(유아사)	자신의 대상을 요별한다[了自境] : 안 등의 5근은 각기 개별적인 [자신]의 경계를 능히 요별하는 [의식]에 대해 중상의 작용을 갖고 있다. (§ 2.2-1.6)					자신의 대상을 요별한다 [了自境] : 재의 근은 일체의 경계를 능히 요별하는 의식에 대해 중상의 작용을 갖고 있다. (§ 2.2-1.6)	두 성의 차별은 여근과 남근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여근과 남근은 두 성에 대해 중상력이 있다.(§ 2.2-1)		명근은 중등분(中)에서 지(持)하는 것에 대해 중상의 작용이 있다.(§ 2.3)	낙(樂) 등의 5수근은 잠정법에 대해 중상의 작용이 있다. : 계경에서 “낙수(樂受)에서는 탐이 수증(隨增)하고, 고수(苦受)에서는 진(瞋)이 수증하며,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에서는 무명이 수증한다”고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 2.5) 근(眼)들의 특성-유정신(有情身) 기준	내(內) 6처는 바로 유정신(有情身)의 근본.(§ 2.5)					이러한 내 6처, 즉 유정신의 상의 차별은 여 · 남 두 가지 근에 의한 것.(§ 2.5)		명근에 의해 이러한 내 6처의 유정신은 알기(了)는 중안 지족(中眼)이다.(§ 2.5)		내 6처의 유정신이 잠연을 성취하게 되는 것은 5수근에 의해서 이다.(§ 2.5)				
§ 2.6) 근(眼)들의 특성-유전(流轉) 완결(圓滿) 기준	1) 유전위 소의(所依)					2) 유전위 행(性)		3) 유전위 지족(足)		4) 유전위 수월(受用)				
§ 2.7-2.8) 5수근(五受根)의 산수(善惡)/임수(心受)	< 5수근과 3무무근 특상표 참조 >													
§ 2.8) 5수근의 분별/무분별	X	X	X	X	X	3무무근 간입 9근	X	X	X	3무무근 간입 9근	X	3무무근 간입 9근	X	3무무근 간입 9근
§ 2.9) 유루(有漏)/무루(無漏) : 유루란, 번뇌와 상응하고 번뇌를 발생시키는 것.	유루(有漏)	유루(有漏)	유루(有漏)	유루(有漏)	유루(有漏)	유루/무루	유루(有漏)	유루(有漏)	유루(有漏)	유루/무루	유루(有漏)	유루/무루	유루(有漏)	유루/무루
§ 2.10) 미숙(異熟)비이숙(非異熟)	이숙/비이숙	이숙/비이숙	이숙/비이숙	이숙/비이숙	이숙/비이숙	이숙/비이숙	이숙/비이숙	이숙/비이숙	이숙(異熟)	이숙/비이숙	이숙/비이숙	이숙/비이숙	비이숙(非異熟)	이숙/비이숙
§ 2.10-14) 선악업의 미숙 분별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선악(善惡)-선입이숙 악취(惡趣)-악입이숙
§ 2.11) 유이숙(有異熟)비이숙(非異熟) : 유이숙이란, 이숙과(異熟果)를 가짐을 의미함. 즉, 이숙의 과보를 부르는 이숙인(因)이 있을 알함. 무이숙이란 이와 반대임.	무이숙과(無異熟果)	무이숙과(無異熟果)	무이숙과(無異熟果)	무이숙과(無異熟果)	무이숙과(無異熟果)	유이숙과/무이숙과	무이숙과(無異熟果)	무이숙과(無異熟果)	무이숙과(無異熟果)	유이숙과/무이숙과	유이숙과/무이숙과	유이숙과/무이숙과	유이숙과(有異熟果)	유이숙과/무이숙과
§ 2.12) 선(善), 불선(不善), 무기(無記)	무기(無記)	무기(無記)	무기(無記)	무기(無記)	무기(無記)	선/불선/무기	무기(無記)	무기(無記)	무기(無記)	선/불선/무기	선/불선/무기	선/불선/무기	선(善)/불선(不善)	선/불선/무기
§ 2.13) 3계(界) 계속(續)-욕계계(欲界界) <19>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욕계계(欲界界)
§ 2.13) 3계(界) 계속(續)-색계계(色界界) <15>	색계계(色界界)	색계계(色界界)	색계계(色界界)	색계계(色界界)	색계계(色界界)	색계계(色界界)	X	X	색계계(色界界)	색계계(色界界)	X	색계계(色界界)	X	색계계(色界界)
§ 2.13) 3계(界) 계속(續)-무색계계(無色界界) <8>	X	X	X	X	X	무색계계(無色界界)	X	X	무색계계(無色界界)	X	X	X	X	무색계계(無色界界)
§ 2.14) 견소단(見所斷), 수소단(修所斷), 비소단(非所斷)	수소단(무명요, 유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견소단(명요, 유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비소단(무명요, 무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견소단(명요, 유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비소단(무명요, 무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견소단(명요, 유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비소단(무명요, 무루)	견소단(명요, 유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견소단(명요, 유루) 수소단(무명요, 유루) 비소단(무명요, 무루)
§ 2.15-1) 욕계 태-난-습성의 최초 이숙근 <2>	X	X	X	X	욕계 태-난-습성	X	X	X	욕계 태-난-습성	X	X	X	X	X
§ 2.15-2) 욕계 화성의 최초 이숙근-無形<8>, 一形<7>, 二形<8>	욕계 화성 無形 & 一形 & 二形	욕계 화성 無形 & 一形 & 二形	욕계 화성 無形 & 一形 & 二形	욕계 화성 無形 & 一形 & 二形	욕계 화성 無形 & 一形 & 二形	X	욕계 화성 一形(남, 여근 중 하나) & 二形(남, 여근 모두)	욕계 화성 一形(남, 여근 중 하나) & 二形(남, 여근 모두)	욕계 화성 無形 & 一形 & 二形	X	X	X	X	X
§ 2.15-3) 색계성의 최초 이숙근 <6>	색계성	색계성	색계성	색계성	색계성	X	X	X	색계성	X	X	X	X	X
§ 2.15-4) 무색계성의 최초 이숙근 <1>	X	X	X	X	X	X	X	X	무색계성	X	X	X	X	X
§ 2.16-1) 무색계 명요-무기심 명종시 마지막 근 <3>	X	X	X	X	X	무색계사(명요-무기심)	X	X	무색계사(명요-무기심)	X	X	X	X	무색계사(명요-무기심)
§ 2.16-2) 색계 명요-무기심 명종시 마지막 근 <8>	색계사(명요-무기심)	색계사(명요-무기심)	색계사(명요-무기심)	색계사(명요-무기심)	색계사(명요-무기심)	색계사(명요-무기심)	X	X	색계사(명요-무기심)	X	X	X	X	색계사(명요-무기심)
§ 2.16-3) 욕계 명요-무기심 명종시 마지막 근-1.轉命轉時 - 無形<8>, 一形<9>, 二形<10>	욕계 들연사(명요-무기심) 無形 & 一形 & 二形	욕계 들연사(명요-무기심) 無形 & 一形 & 二形	욕계 들연사(명요-무기심) 無形 & 一形 & 二形	욕계 들연사(명요-무기심) 無形 & 一形 & 二形	욕계 들연사(명요-무기심) 無形 & 一形 & 二形	욕계 들연사(명요-무기심) 無形 & 一形 & 二形	욕계 들연사 一形(남, 여근 중 하나) & 二形(남, 여근 모두)	욕계 들연사 一形(남, 여근 중 하나) & 二形(남, 여근 모두)	욕계 들연사(명요-무기심) 無形 & 一形 & 二形	X	X	X	X	욕계 들연사(명요-무기심) 無形 & 一形 & 二形
§ 2.16-4) 욕계 명요-무기심 명종시 마지막 근-2.轉命轉時 <4>	X	X	X	X	욕계 잠전사(명요-무기심)	욕계 잠전사(명요-무기심)	X	X	욕계 잠전사(명요-무기심)	X	X	X	X	욕계 잠전사(명요-무기심)
§ 2.16-5) 3계 선심(善心) 명종시 마지막 근 <15>	욕계 & 색계 선심(善心) 명종	욕계 & 색계 선심(善心) 명종	욕계 & 색계 선심(善心) 명종	욕계 & 색계 선심(善心) 명종	욕계 & 색계 선심(善心) 명종	욕계 & 색계 & 무색계 선심(善心) 명종	욕계 선심(善心) 명종	욕계 선심(善心) 명종	욕계 & 색계 & 무색계 선심(善心) 명종	X	X	X	X	욕계 & 색계 & 무색계 선심(善心) 명종
§ 2.17) 사문과(四門處) 획득과 근 <9>	사문과 획득의 근													

근 분별 /: or & : and	신근 (信根, śrādhendriya)	근근 (勤根, viryendriya)	염근 (念根, smṛtiendriya)	정근 (定根, samādhīndriya)	혜근 (慧根, prajñendriya)	미지당지근 (未知當智根, āpñātam-ajñāsyāmiṇḍriya)	이지근 (已智根, ajñendriya)		
22근의 발주 분별	5신근(五信根)					3무무근(無漏根)		5수근 특상	§ 2.7-2.8)
§ 1.48) 22근과 18계	상상(信)							낙근(樂根, sukhendriya)	산수(善受)
22근과 5위 분별	심상(信)					심법&심소법		고근(苦根, duḥkhendriya)	
§ 2.1) 근들의 중상력(유무)	신(信) 등의 여덟 가지 근이 청정함에 대해 중상력이 있다고 함은, 온갖 청정법이 그것에 따라 증장하기 때문이다. (§ 2.1-3.2) 신(信) 등의 여덟 가지 근 : [신(信) 등의 5근] : 신(信) · 근(勤) · 염(念) · 정(定) · 혜(慧) @ [3 무무근] : 미지당지(未知當智) · 이지(已智) · 구지(俱智) = 8.							회근(懷根, saumanasyendriya)	삼수(不善受)
								우근(憂根, saumanasyendriya)	
								사근(捨根, upeṣendriya)	신수 & 참수
§ 2.2-2.4) 근들의 중상력(유/무사)	신(信) 등의 5근은 청정법에 대해 중상의 작용이 있다 : 5근의 세력에 의해 제 번뇌를 조복(調伏)하고, 성도(聖道)를 인가(引)하기 때문이다. (§ 2.3) 1) 3무무근(未知當智根 · 已智根 · 俱智根)은 그 다음 드는 것에 대해 중상의 작용이 있다 : 이를테면 미지당지(未知當智)의 중상의 작용이 있고, 이지근은 구지근의 도를 획득하여 구지근은 일반을 획득하는데 중상의 작용이 있다. (§ 2.4)					3무무근 특상		§ 2.8) 3무무근	① 3무무근을 멸하게 된 것② ③ 3무무근을 면 진지(盡智)§ 2.8-2 각주31
미지당지근(未知當智根, ajñātam-ajñāsyāmiṇḍriya)									
이지근(已智根, ajñendriya)									
구지근(俱智根, ajñāsvīndriya)									
§ 2.5) 근(根)들의 특성-유정신(有情身) 기준	유정신이 청정한 자량이 되는 것은 신(信) 등의 5근에 의해서이다. (§ 2.5)					유정신이 청정함을 성취하게 되는 것은 뒤의 세 가지(2.5)			
§ 2.6) 근(根)들의 특성-유전(流轉)·환멸(還滅) 기준	1) 환멸위 소의(所依)					2) 환멸위 생(生)		3) 환멸위 지속(住)	4) 환멸위 수용(受用)
§ 2.7-2.8) 5수근(五受根)의 산수(善受)/상수(不善受)									
§ 2.8) 5수근의 분별/무분별									
§ 2.8) 3무무근을 건입하는 9근	3무무근 건입 9근	3무무근 건입 9근	3무무근 건입 9근	3무무근 건입 9근	3무무근 건입 9근	X	X	X	
§ 2.9) 유무(有漏)/무무(無漏) : 유무란, 번뇌와 상응하고 번뇌를 발생시키는 것.	유무/무무	유무/무무	유무/무무	유무/무무	유무/무무	무무(無漏)	무무(無漏)	무무(無漏)	
§ 2.10) 이숙(異熟)/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 2.10-14) 선악업의 이숙 분별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비이숙(非異熟)	
§ 2.11) 유이숙(有異熟)/무이숙(無異熟) : 유이숙이란, 이숙과(異熟報)를 가짐을 의미함. 즉, 이숙의 과보를 부르는 이숙인(因)이 힘을 멸함. 무이숙이란 이와 반대임.	유이숙과/무이숙과	유이숙과/무이숙과	유이숙과/무이숙과	유이숙과/무이숙과	유이숙과/무이숙과	무이숙과(無異熟報)	무이숙과(無異熟報)	무이숙과(無異熟報)	
§ 2.12) 선(善), 불선(不善), 무기(無記)	오직 선(善)	오직 선(善)	오직 선(善)	오직 선(善)	오직 선(善)	오직 선(善)	오직 선(善)	오직 선(善)	
§ 2.13) 3계(界) 계속(繫屬)-욕계계(欲界繫) <19>	욕계계(欲界繫)	욕계계(欲界繫)	욕계계(欲界繫)	욕계계(欲界繫)	욕계계(欲界繫)	X	X	X	
§ 2.13) 3계(界) 계속(繫屬)-색계계(色界繫) <15>	색계계(色界繫)	색계계(色界繫)	색계계(色界繫)	색계계(色界繫)	색계계(色界繫)	X	X	X	
§ 2.13) 3계(界) 계속(繫屬)-무색계계(無色界繫) <8>	무색계계(無色界繫)	무색계계(無色界繫)	무색계계(無色界繫)	무색계계(無色界繫)	무색계계(無色界繫)	X	X	X	
§ 2.14) 견소단(見所斷), 수소단(修所斷), 비소단(非所斷)	수소단(무명오, 유무) 비소단(무명오, 무무)	수소단(무명오, 유무) 비소단(무명오, 무무)	수소단(무명오, 유무) 비소단(무명오, 무무)	수소단(무명오, 유무) 비소단(무명오, 무무)	수소단(무명오, 유무) 비소단(무명오, 무무)	비소단(무명오, 무무)	비소단(무명오, 무무)	비소단(무명오, 무무)	
§ 2.15-1) 욕계 태·난·습생의 최초 이숙근 <2>	X	X	X	X	X	X	X	X	
§ 2.15-2) 욕계 화생의 최초 이숙근-無形<6>, 一形<7>, 二形<8>	X	X	X	X	X	X	X	X	
§ 2.15-3) 색계생의 최초 이숙근 <6>	X	X	X	X	X	X	X	X	
§ 2.15-4) 무색계생의 최초 이숙근 <1>	X	X	X	X	X	X	X	X	
§ 2.16-1) 무색계 명오·무기심 명종시 마지막 근 <3>	X	X	X	X	X	X	X	X	
§ 2.16-2) 색계 명오·무기심 명종시 마지막 근 <8>	X	X	X	X	X	X	X	X	
§ 2.16-3) 욕계 명오·무기심 명종시 마지막 근-1.轉命終時 - 無形<6>, 一形<9>, 二形<10>	X	X	X	X	X	X	X	X	
§ 2.16-4) 욕계 명오·무기심 명종시 마지막 근-2.轉命終時 <4>	X	X	X	X	X	X	X	X	
§ 2.16-5) 3계 산심(善心) 명종시 마지막 근 <4>	욕계 & 색계 & 무색계 산심(善心) 명종	욕계 & 색계 & 무색계 산심(善心) 명종	욕계 & 색계 & 무색계 산심(善心) 명종	욕계 & 색계 & 무색계 산심(善心) 명종	욕계 & 색계 & 무색계 산심(善心) 명종	X	X	X	
§ 2.17) 사문과 획득의 근 <9>	사문과 획득의 근	사문과 획득의 근	사문과 획득의 근	사문과 획득의 근	사문과 획득의 근	사문과 획득의 근	사문과 획득의 근	사문과 획득의 근	

5수근과 3무루근 특성표 (§ 2.7~2.8)		
신수(神水) & 삼수(心水)	(§ 2.8) 5수근의 분별&무분별	
1) 출거음'이란 바로 삼수 잠익(睡眠)의 뜻이다'. 즉 신수 안에서 능히 삼수 잠적하는 것을 일컬어 "낙근(樂根)" 이라고 하는 것이다. 2) 제3장의 중에는 신수가 존재하지 않으며 5식신이 없기 때문에 '마음의 출거음(心聲)'을 바로 낙근이라 이르는 것이다. (§ 2.7)	무분별 (대상의 힘[權力]에 의해 발생)	1) 몸이 존재하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분별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오로지 대상의 힘[權力]에 따라 생겨난다. (§ 2.8-1) 2) 몸이 존재하는 5식상응의 고락(苦樂)은 마음의 분별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색 등의 대상의 힘에 의해서만 생겨나기 때문에 무분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학의 상자에게도 이러한 5식상응의 고락은 존재하는 것이다. (§ 2.8-1 각주28)
1) 몸이 출감지 않은 것을 고근(苦根)이라 이른다. 2) 몸이란 신수(神水)를 말한다. 즉 신수는 소라산에 의지하여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같이 말한 것으로, 바로 5식상응의 수(水)인 것이다. 3) 출감지 않은 것'주해)'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손상되거나 고쳐스리운 것(損傷)의 뜻이다. 즉 신수 안에서 능히 손상되거나 고쳐스리운 것을 일컬어 고근(苦根)이라고 하는 것이다. (§ 2.7)		
1) 제3장리를 제외한 그 아래 세 가지 지(地) (즉 육계, 제1· 제2 정리지)에서는 이 같은 마음의 출거음을 일컬어 희근(喜根)이라 한다. 왜냐 하면 제3장리에서의 마음의 출거음이야말로 안정(安動)된 것으로 회탐(懷貪)을 떠났기 때문에 오로지 낙근이라고 이름하지만, 그 아래 세 가지 지 중에서의 마음의 출거음은 추동(瞋動)으로 회탐을 갖기 때문에 오로지 희근이라고만 이름하는 것이다. (§ 2.7)	분별 (신앙이나 이수에 의해 비롯된 것 제외)	1) 마음에 존재하는 괴로움이나 즐거움은 대개 분별로부터 생겨난다. (§ 2.8-1) 2) 마음에 존재하는 괴로움이란 바로 수근을 말하며, 즐거움이란 희근을 말한다. 즉 이러한 괴로움과 즐거움은 선정이나 이속에 의해 비롯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별에서 생겨난다. (§ 2.8-1 각주28)
의식과 상응하여 능히 손상 고쳐하는 수(水)로서, 바로 마음이 출감지 않는 것을 일컬어 무근(無根)이라고 한다. (§ 2.8)		
1) 출거은 것도 아니고 출감지 않은 것도 아닌 것(神境非주해)으로, 바로 불고불락수(不苦不樂受)를 말하는에, 이러한 수를 일컬어 사근(捨根)이라고 이른다. (§ 2.8-1)	무분별 (분별이나 대상의 힘이 아닌 자연적[任運] 발생)	1) 사(捨)는 [몸에 있든 마음에 있든 다 같이] 무분별로서, [분별이나 경계에 따라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자질로[任運]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으로 설정할 때에는 몸과 마음을 합하여 하나의 수로 삼은 것이다. 2) 사근의 경우 몸에 있든 마음에 있든 다 같이 무분별로서, 그것들을 손상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익되게 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상에 다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수를] 하나의 근으로 합하여 설정하게 된 것이다. (§ 2.8-1)
무근의 특성		
건립하는 아홉 가지의 근 : 의근(意根) · 낙근(樂根) · 희근(喜根) · 사근(捨根) / 신근(神根) · 근근(勤根) · 염근(念根) · 정근(定根) · 혜근(慧根). ㉔ 견도(見道)에서는 의근 등의 아홉 가지 근에 의해 미지당지근(未知當知根)이 성립한다. ㉕ 견도에서는 일찍이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미량히 알아야 할 행상(行相)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 '미지당지(未知當知)'라고 삼한 것이다. (§ 2.8-2)		
건립하는 아홉 가지의 근 : 의근(意根) · 낙근(樂根) · 희근(喜根) · 사근(捨根) / 신근(神根) · 근근(勤根) · 염근(念根) · 정근(定根) · 혜근(慧根). ㉔ 수도(修道)에서는 바로 이러한 아홉 가지 근에 의해 미지근(已知根)이 성립한다. ㉕ 수도에서는 일찍이 알지 못하였던 것이 없으며, 다만 그 뒤의 나머지 수만을 곁과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계에서는 [이미 안 대상(已知相)]을 다시금 자꾸 자꾸 요지(了知)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 '이미(已知)'라고 이다. (§ 2.8-2)		
건립하는 아홉 가지의 근 : 의근(意根) · 낙근(樂根) · 희근(喜根) · 사근(捨根) / 신근(神根) · 근근(勤根) · 염근(念根) · 정근(定根) · 혜근(慧根). ㉔ 무학도(無學道)에서도 역시 이러한 아홉 가지 근에 의해 구지근(具知根)이 성립한다. ㉕ 무학도에서는 스스로 이미 알았음을 알았기 때문에 '지(知)'라고 일컬은 것으로, 이러한 '지'를 가진 것을 일컬어 '구지(具知)'라고 하였다. 혹은 이러한 지를 자꾸 익힘으로써 이미 그 성품을 성취한 것을 일컬어 '구지'하였다. ㉕ 이들에 각 무생지(無生智)를 획득하였기 때문이다. (§ 2.8-2) 진지(眞智, ksaya-jñāna)란 무학의 성자가 '나는 고통 이미 알았고, 집들 이미 끊었고, 멸을 이미 증득하였고, 도를 이미 닦았다'고 자각하는 지혜를 말하며, 무생지(無生智, anutpāda-jñāna)란 '나는 이미 고통 알아 더 이상 알 것이 없으며, 집들 이미 끊어 더 이상 끊을 것이 없으며, 멸을 이미 증득하여 더 이상 증득할 것이 없으며, 도를 이미 닦아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고 깨달아 아는 지혜를 말한다. (§ 2.8-2)		